



무익한 종

그가 가장 싫어하는 인사말은 “왜 이렇게 야위었어?”입니다. 그럴 때면 조용히 따로 불러 이릅니다. “그렇게 애기하면 내가 원랜 어떤 줄 알겠어?” 그의 말 중에 아주 못 믿을 말도 있습니다. “요즘 더 이상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럴 때면, 약 2초의 정적이 흐른 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빵! 터지고 맙니다. **그는 누굴까요. 네, 그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0.1t의 코끼리 선교사 조문상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조 선교사님을 1989년 알게 됐지만, 3개월 전에야 처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전까진 믿음 좋고 품채 좋은 존경하는 선배였습니다. 지금은, 믿음 좋고 품채 좋은, 그리고 어마무지 잘~ 드시는 존경하는 선배십니다. ^^ 얼마 전이었습니다. 몇몇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즐겁게 오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6명이 함께 탄 비좁은 차 안에서 선교사님이 A 권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우와, 이 핸드백 예쁘다, 이거 뭐예요? 낙타? 타조?” 권사님이 대충 뭐라 답하시기도 전에 조 선교사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타조 고기 맛있어요. 고기가, 하~애. 그리고 악어 고기도 맛나요. 그건 뭐랄까~ 약간 비린내 나는 닭고기 같다고나 할까?...” 저는 몰랐습니다. 살다보면, 예쁜 핸드백이 낙타 가죽이냐는 질문 바로 다음에, 타조 고기, 낙타 고기, 악어 고기 맛으로 화제가 직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우리는 아주 풍성한 점심 식사를 이제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좋다는 교수직은 왜 그만두셨어요?”

거의 30년 만에 만난 조 선교사님께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조 선교사님은 예수님께 가장 근접한 현존하는 인류 만 명 중 한 사람으로 뽑히지 않을까 싶은 분이셨습니다. (물론 같이 식사하기 전까진 그랬단 애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듣는 순간, 아멘 하고 바로 털고 나섰



다'라고 답하시겠지...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교수직 그만 둘 때가 제일 힘들었던 때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교수, 좋잖아요? (웃음) 그래서, 휴직을 할까 싶기도 했고, 병행할까도 생각했어요. 결국 그만두기 싫다는 방향으로 마음이 모아졌는데, 계속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큐티가 무서운 게 마음에 어떤 이슈를 품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복해 쌓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순 없지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지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수직을 내려놓는 순간, 참 기뻐했어요. 뭐랄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안정감이랄까.”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로 꼽히는 교수직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주었다고 말하는 그를 보며, 제가 가지고 있던 안정감에 대한 정의가 약간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지하게.



“김정년 선교사님과는 어찌 만나신 거예요?”

(저는 고백컨대, 조문상 선교사님을 100%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김정년 선교사님을 200%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자, 바로 유학 시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 보다 세 살 연상인 누나. 우리와 ‘결음 걸이가 조금 다른’ 그 누나를 만난 장남 조문상. 그에게 그 누나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달린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줄 아는 예술가였고, 누구보다 은혜로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예배자였으며, 누구 보다 밝은 에너지를 값없이 나눠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믿음도 없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해준 바로 그 은인...은, 곧 그와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반대, 당연히 있었습니다. 조 선교사님은 지금도 입버릇처럼 자랑합니다. “나한테 정말 과분한 여자야...참 좋은 사람이지 진짜...” 하지만 둘째를 잃었을 당시를 얘기할 때는 선교사님의 그 어린 아이 같은 미소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아내

가 그 때 참 많이 힘들어 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는 더 오래 동안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는 한동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뷰 도중 그의 카톡 인사말인 ‘Not Success but Service’의 기원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알아요?”라며 말문을 연 그는 서른 두 살의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인 조선 땅을 찾아, 고아와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 봉사의 삶을 살았던 서 선교사님 얘기를 전하며 몇 번을 울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시신 기증 결과 사인이 영양실조였다는 대목에서, 그녀의 유품이 오래된 모포 반장과 강냉이 가루 두 홑이었다는 대목을 말하면서는 결국 두 눈가가 발강게 달아올랐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 적힌 그녀가 남긴 쪽지는 조 선교사님께 그저 한 줄의 명언이 아닌 겁니다. 자신이 넘어야 하는 큰 도전이자, 이루고 싶은 비전인 겁니다. 조 선교사님이 바라는 묘비명을 끝으로 물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익한 종”이라고 답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 억명 중에 저는 가장 부족한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죠.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글: 최승호 사진: 조정문)

조문상 선교사님은...

1959년 서울생. 미국 미시간대 건축공학 박사. 전 숭실대 교수. BEE Korea 사무총장. 그는 올해 BEE 코리아가 더 낮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위한 '라구' 시리즈를 완간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가족은 아내이자 동역자인 김정년 선교사와 일본에서 유학중인 아들 조장환(31)이 있습니다.

● 'BEE 오는 수요일'은...

2016년 3월 30일 제 1호를 냈습니다. BEE Korea 회원들을 위한 온라인 소식지입니다. 회원들의 인터뷰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이야기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Special Thanx to...

최지영님께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최지영님께서 'BEE 오는 수요일'이라는 멋진 대문 디자인을 재능 기부해 주셨습니다. 'BEE 오는 수요일' 전체 편집 작업도 맡아주고 계십니다. 최지영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글쓴이 최승호는...

1969년 서울생. 신문사 10년, 대기업 10년을 거쳤습니다. 현직 백수입니다. 'BEE 오는 수요일'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대후문 근처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를 다닙니다. 온누리교회 JDS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 사진찍는 조정문은...

사진 찍히는 게 싫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지만 상대방도 같은 마음일까봐 맘껏 들이대지 못하는 소심한 아줌마.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막상 노래에는 영 소질이 없고, 사람보다 기계와 씨름 하는 게 편하지만 어찌다보니 사람 만나는 게 주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중입니다.